

혁신을 키우는 정책제안 컨퍼런스

당신은 혁신의 편입니까?

나의 삶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호혜의 혁신필드에 대한 n개의 제안

2017. 04. 23. (일) 11:00 ~ 14:00 (3시간)

르호봇 G 캠퍼스 (서울 신촌)

주 최 | 재)여시재, 사)사회혁신공간 there,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포럼창조도시를만드는사람들, 대전충청청년모임-꿀단지, 사)광주창업지원네트워크,
ESC(변화를꿈꾸는과학기술인네트워크), 서울혁신파크 입주자 자치회,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주 관 |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 there, 온라인플랫폼 Parti

한국사회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프로젝트 소개

‘혁신을 키우는 정책제안 프로젝트: 당신은 혁신의 편입니까?’는 한국사회를 바꿔나갈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대안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혁신에 앞장서는 사람들로부터 목소리를 모아 뼈대를 세우고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살을 붙여 만든 정책을 제안합니다.

1970년대에 설계된 한국사회 시스템은 이제 시효를 다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울 혁신적 대안이 없다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낡은 시스템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혁신가들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기도 하고, 소셜벤처에서 일하기도 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일하든, 무엇을 지향하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혁신가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혁신가들에게 묻고, 그 답을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시켜 정책으로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 정책이 실현되도록, 혁신의 편에 선 사람들의 생각과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언제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뭉쳐서 힘을 낼 때, 혁신의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낡은 질서를 밀어낼 때 찾아옵니다. 다가오는 변화의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갈등을 넘어 혁신에 편에 서서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당신은 혁신의 편입니까?

프로젝트 진행과정

‘혁신가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에 대해 발언하고 공감한 모든 혁신가들이 이끍니다.

정책과 법률 분야의 자문단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혁신가들의 생각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듭니다. 연구팀이 이들의 이야기를 모아 한국사회 변화 전략을 제시합니다.

- 혁신가 인터뷰
-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
- 정책제안 발표 및 캠페인
- 정부 정책, 정당 정책, 선거 공약, 헌법과 법률 개정안 등에 반영

세부 프로그램 & 참여안내

11:00 행사시작

인사말, 개최배경, 주관/주최 단체 소개, 캠프 참가자를 소개 소개해드립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잠시만 참아주세요.

11:15 1차 투표 안내

오늘은 정책에 투표하는 날입니다.
참여자 여러분에게 전자 투표 방식을 설명해드립니다.
<http://bit.ly/혁신정책투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11:20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혁신 생태계 정책 발표

마음에 드는 정책이 있으면 투표하세요.

11:45 1차 투표 결과 보기

11:50 자리 이동과 정책만들기 워크숍

본인이 만들어 보고 싶은 정책을 정책 제안자들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보고 싶은 정책의 보드에서 테이블 번호를 떼신 후 해당 테이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음식 드시면서 치열하게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정책을 다 만드셨으면 조금 쉬셔도 좋습니다.
대신 12시 45분까지 행사장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12:45 정책만들기 워크숍 결과 공유

만드신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하겠지만 시간상 저희들이 아주 빠르게 대신 공유하겠습니다.

12:55 최종투표안내

마지막 투표를 시작합니다.

13:00 19대 대선 후보 정책 담당자의 대답

우리가 만든 정책에 대한 각 캠프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 문재인 후보캠프 - 하승창 (사회혁신&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서울시 부시장)
- 안철수 후보캠프 - 채이배 (정책본부 공약단장/국회의원)
- 유승민 후보캠프 - 이종훈 (정책본부장, 전 국회의원)
- 심상정 후보캠프 - 김형탁 (조직2본부장/정의당 부대표)

패널들이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테이블 위에 준비된 A4용지에 질문과
질문자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진행요원이 모아서 다음 시간에 패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40 참가자 질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13:55 최종투표 결과 공유 및 사진촬영

최종투표를 마감하고 모두 함께 사진을 찍을 시간입니다.
남는 것은 사진입니다. 모두 함께 사진을 남깁시다.

혁신정책 투표

1. 스마트폰에서 safari 또는 chrome 등 인터넷 브라우저 앱을 실행시킵니다.
2. 주소창에 **http://bit.ly/혁신정책투표** 를 입력합니다.
3. 화면의 비밀번호 입력란에 **0509** 라고 입력합니다.
4. 실시간 투표화면에 반영될 **이름(또는 별명)**을 등록하고 **다음으로**를 누릅니다.

***사진은 선택사항입니다.**

5. **1차 혁신투표**를 누릅니다 - 정책 리스트 중 마음에 드는 **정책 3개**를 골라 투표해주세요.

6. 정책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 토론하며 선택을 바꾸어 봅니다.

투표 진행 결과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예시 이미지)

7. (최종투표) 정책 만들기 워크숍이 끝나면 최종 투표가 진행됩니다.

상단 **당신은 혁신의 편입니까**를 누르시거나 -

safari 또는 chrome 인터넷브라우저의 주소창에 **http://bit.ly/혁신정책투표** 를 입력하여 -
2차 혁신투표를 누릅니다.

8. 토론을 한 후 가장 마음이 가는 정책 **1개**를 골라 최종투표해주세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차기정부 10대 정책과제

정책제안 I : 4대 선결 과제(규제개혁과 지원 혁신)

01. 신사업 조기 활성화 위한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02. 소셜벤처를 키우는 사회혁신공익투자기금 신설
03.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도입
04. 혁신가 지원을 위한 '혁신장학금' 신설, '근로소득지원금' 확대

정책제안 II : 공정 시장의 보장, 공유 행정의 실험

05. 소프트웨어 산업혁신 위한 '재벌 SI기업 계열분리'
06. 공정한 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업 기술보호 강화
07. 공유행정 : 민간 혁신활동 위한 '공공소유 유허 공간/시설' 개방

정책제안III: 혁신 거버넌스의 모색

08. 신산업과 사회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혁신도시 2.0
09. '혁신특별조정기구'설치 및 청와대 '혁신비서관' 신설
10.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와 과학의회 설립

-
11. ESC(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네트워크)가 제안하는 과학교육의 혁신정책

01

신사업 조기 활성화 위한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 필요한 규제는 하되, 적어도 혁신이 일어나는 새로운 산업과 제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함.

제안 신사업 조기 활성화 위한 ‘신사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ICT 등 주요 신사업 영역을 정부가 지정하고, 이 산업에 대해 연장을 전제로 2년 기간을 두고 기존 규제 제한의 최소한 적용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사례

- ① 2015년 11월 영국 금융감독청이 핀테크 스타트업들로 하여금 비즈니스모델을 테스트하게 도울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 ② 2017년 1월부터 일본이 혁신적인 사업과 서비스를 육성할 때 현행법 규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 중임.
- ③ 2017년 3월, 김성태 의원이 규제 샌드박스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임시 허가제 강화’를 제안하고 있음.
- ④ 금융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중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02

소셜벤처를 키우는 사회혁신공익투자기금 신설

필요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새로운 사회문제해결 시도를 할 수 있게 투자하는 자금은 찾기 어려운 상황

제안 소셜벤처에 인내자본을 투자하는 사회혁신공익투자기금 조성

적정한 위험을 지면서 공익 목적을 추구하되 성과에 따라 보상을 거둬가는 인내자본 성격의 사회혁신공익투자기금을 조성,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 사회혁신가들을 육성

기금 조성

기존 정부기금, 모태펀드, 휴면예금 등을 활용해 독립 기금을 조성하며, 소셜벤처 투자에 엔젤투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민간 투자참여를 유도

03

사회성과연계채권(SIB)도입

필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이 급속히 확산

제안 사회문제와 정부 예산부족을 동시에 해결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도입

민간투자자 정책사업 수행 뒤 성과목표 달성 때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되 투자자에게 성과보수와 함께 상환하는 사회성과기반 예산집행방식(SIB)을 도입

사례 세계 최초의 SIB 사업인 영국 피터버러시의 단기 재소자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2014년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장

※ 서울시는 아시아 최초로 SIB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

04

혁신가 지원 위한 혁신장학금 신설, 근로소득지원금 확대

필요 혁신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이 온전히 도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생활의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

제안 ① 혁신을 시도하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에게 주어지는 ‘혁신 장학금’

스타트업 기업가, 사회적기업가, 비영리 혁신가 등 매년 일정한 숫자의 혁신가를 선정,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 형태의 소득을 지급하는 혁신 장학금 제도 도입을 제안함.

② 혁신 활동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근로소득 지원금’

혁신활동을 함께하는 직원들에게도 소득지원이 필요함.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이용되었던 근로장학금(EITC) 제도로 우리도 현재 4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형태를 제안함.

05

소프트웨어 산업혁신 위한 ‘재벌 SI기업 계열분리’

필요 재벌계열사들의 시스템통합(SI) 수요가 전체 시장에 열려있지 않고 재벌계열 SI업체들의 내부거래에 의해 닫혀있는 모양새이어서 다양한 중소규모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B2B시장 영역이 제한을 받게 됨

제안 소프트웨어 산업혁신 위한 공정경쟁의 조건, ‘재벌 SI계열분리’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재벌계열사들을 포함한 국내 B2B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시장 접근을 위해 원칙적으로 재벌이 소유한 SI업체의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정책을 제안함. 당장 계열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열분리 일정을 제시하고, 그 동안 전체 계열내부거래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함.

사례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소모성 자재 조달업(MRO)에 대해 삼성 IMK, SK 코리아 MRO등 재벌계열에서의 분리 매각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06

공정한 인수합병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업 기술보호 강화

필요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대기업이 기술창업을 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원인.

제안 국내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업 기술보호 강화

계약체결 준비과정 또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취득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경우 정액과징금제(5억원)를 신설할 것을 제안.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체계에서 ‘포괄적 정의 및 예시 조항’ 체계로 전환.

07

공유행정 : 민간 혁신활동 위한 ‘공공소유 유헴 공간/시설’ 개방

필요 공간은 통상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투자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스타트업이나 사회혁신가등 이제 막 혁신활동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동원하는 자원임. 특히 도시에서는 막대한 임대료 등을 감당해야 함.

제안 공공의 저활용 유헴공간 및 자원을 시민에게 대폭 개방하고 접근권 허용
‘공공 유헴공간 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공공 유헴공간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확인. 공공의 공간자원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매우 제한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혁신가들이 제안한 장기계획이 지속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면, 장기(10년 이상) 위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

08

신산업과 사회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혁신도시 2.0

필요 혁신도시가 단순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만들어진 소규모 기업도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혁신을 추동할 신산업과 사회혁신 실험을 위한 열린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제안 신산업과 사회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혁신도시 2.0 정책의 추진
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정 :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틀을 갖추 것을 제안함.
혁신도시의 ‘학습지역화’ :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대학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맞춤형 인재 육성을 도모.
혁신도시를 사회혁신 실험실로 :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이 다양한 사회혁신활동 추진을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

09

‘혁신정책조정기구’ 설치 및 청와대 ‘혁신비서관’ 신설

필요 연구개발(R&D) 지원부터 시장의 형성과 성장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정책을 조율하며 국가 혁신 전략을 담당하는 단위를 만들어 혁신생태계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제안 청와대 혁신비서관과 혁신정책조정기구 설치

혁신 분야의 비전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행정 계획 수립 및 관리하는 청와대 혁신비서관 설치
민간과 공공의 협치 형식으로 지배구조를 짠 혁신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해 미래부, 산자부, 중기청, 고용부, 교육부 등으로 나뉘어진 혁신 지원 정책을 조정.

10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와 과학의회 설립

필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중심을 잡아줄 사회협의체를 만들고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함

제안 ①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예산 30%까지 확대

2016년 기준으로 예산 비중 약 10.5%.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30%까지 비중확대.

② 국가 발전방향과 과학기술의 역할을 논의하는 사회협의체 ‘과학의회’ 설립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과학 논의의 중심을 잡는 사회협의체가 필요함.

과학의회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사회구조와 산업구조에 대한 통찰,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성원들의 논의를 모아 장기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 수행.

11 ESC(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네트워크)가 제안하는 과학교육의 혁신정책

1. 인문학적 상상력, 인간에 대한 성찰: 중등·고등 이공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문학 교육

4차 산업혁명, 포스트 휴먼, 인공지능 등의 시대를 앞두고서 과학기술 활동은 높은 창의력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성과지상주의, 엘리트주의 등에 대한 성찰적 지양과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러한 이슈들에 과학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요구됨. 학제 중심 지식 전달 중심의 현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광범위한 인문학 교육이 이공계 진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2. 교양으로써의 과학: General education에서의 과학의 위치 제고

‘개발과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과학’이라는 좁은 프레임을 깨고 ‘교양이자 세계관으로써의 과학’을 포괄하는 시각이 요청됨. 이는 과학기술이 현대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함께 과학의 진보가 인간이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는 시야를 확대시키고 발전시켰다는 점에 근거함.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비이공계학생들, 이공계 학생들의 교양교육, 일반인을 위한 교양과학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교육 체계의 구축이 요망됨. 이를 위한 과학교육과정의 재편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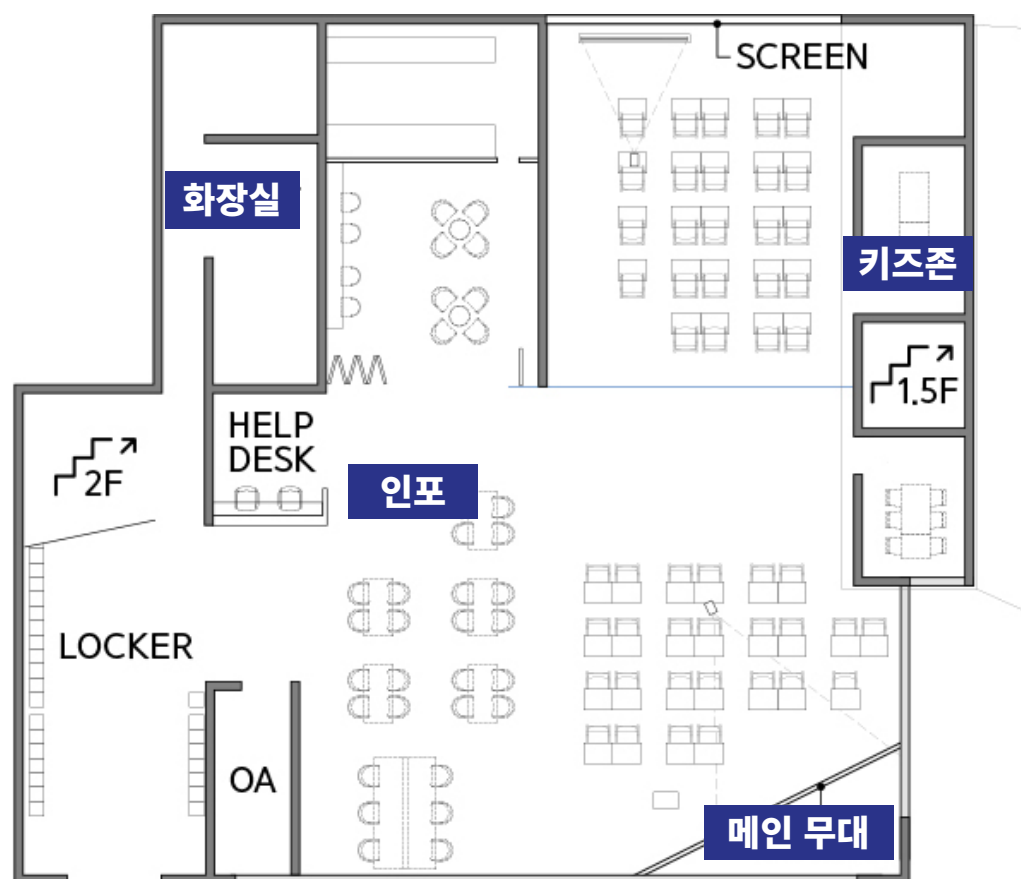
3.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과학교육: 이론 연계 실험 중심 교과과정, Make project, 정출연/대학/기업연구소와의 교육적 연계 체계 및 프로그램 구축

창의력,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능력, 정보를 선별하고 적용하는 능력, 제2의 언어인 코딩 능력, 협력하여 일을 도모하는 능력,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 등은 이론 중심의 하향식 정보전달 교육을 통해 기를 수 없음.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연구소, 과학관, 과학도서관 등의 단체 등이 협력하여 독일의 X-lab과 같은 education initiative를 구축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실험 및 과학 활동을 제공하는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적정기술 등 커뮤니티 이슈를 바탕으로 한 성찰적 과학 활동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어야 함.

4. 과학기술 분야 노동시장의 역동성에 조응하는 진로설계 과정의 교육과정 내 도입 및 신 과학기술 직업군 육성.

역동적인 과학기술자들의 노동시장에 적절히 조응하는 방침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2010년 이후 줄기차고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노동시장 및 직업군의 변동 성향과 미래 예측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함.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진로설계 활동을 학교에서 제공해야 함. 다른 한편 새롭게 만들어질 과학기술 분야 직업군의 합리적 육성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공간활용 팁



이야기 나누기를 위한 제안

잘 듣고 가볍게 이야기 합니다.

[말하는 이의 마음가짐]

- 가볍게 나눕니다

꼭 말해야 할 것도 없고, 말 못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어보죠.

-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잘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요.

- 짧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많습니다. 짧게 이야기합시다.

[듣는 이의 마음가짐]

- 잘 새겨 들읍시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합시다. 잘 들으셔야 다음 토의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경청해 봅시다. 그리고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요.

-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의 말을 끊지 맙시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다른 일을 하기 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데 집중해요.

MEMO

MEMO

